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집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3월 15일 (제78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하나님의 기쁨

나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늘 말해왔다. 하나님은 믿을 있는 자, 즉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를 찾고 계신다. 다시 말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그런 자를 통하여 이를 수 없는 것을 이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함으로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며, 이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기적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다. 날 때부터 소경인 바디매오가 바란 것은 눈을 뜨는 일이었다.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보기를 원했고, 결국 눈을 떴다. 또한 죽은 지사홀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누이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서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셨다. 어디 그들뿐인가? 태의 문이 닫혔던 한나가 아들을 얻은 일, 홍해를 가른 모세, 죽은 아들을 되돌려 받은 나인성 과부... 그들 모두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례가 없는 일들을 바라고 소원하여 얻은 믿을 있는 자들이다.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체육관측에서 나가달라고 한단다. 이현숙 선교사가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을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당신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한 번 되어보지 않겠는가!

네 꿈을 이루려면 준비하라

제23회 예수중심신학교 졸업예배 메시지를 통하여 신학교 이사장이신 이초석 목사님은 철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을 강력하게 주문하셨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기에 앞서 생각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정치나 사업이나 목회는 이 모두가 망하고 실패하기로 계획한 거나 진배없습니다. 성경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요, 매사 준비한 자들이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 책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

옵니까? 기름을 충분히 비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 대 중동 발 오일쇼크로 온 나라가 허둥댔 때, 일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 다. 왜요? 그들은 미리 엄청난 양의 기름을 비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보세요. 그들은 엄청난 원유매장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구 퍼 쓰지 않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중국의 경기회조를 우려하는 서방정상을 앞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에 이릅니다. 어떤 위기에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찌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거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거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목회나 모두 준비하지 않아 망하고는 주위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회를 원망합니다.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일관합니다. 도대체 어찌자는 겁니까?

나는 30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설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집회도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번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도 이미 철저히 준비하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기

제 23회 예수중심신학교 졸업예배

일자: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장소: KBS 88체육관



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 없이는 미래 또한 결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풀이하며 내린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나갈 때 준비하라!’ 요셉은 그 원칙에 충실하여 7년의 대가뭄 속에서도 애굽을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잘 나갈 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IMF구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당시 잘 나가던 100대 기업들 중 살아남은 기업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온 겁니다. 왜 오일쇼크가

외환위기가 올 수 없지요. 현재 우리도 한 번의 큰 위기를 겪고 나더니 4천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여러 선진국과의 통화스와프협정을 통하여 철저히 외환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준비하는 나라나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매사 준비하지 않으니 위기가 왔을 때 허둥대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준비한 것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차에 기름을 준비한 만큼 갑니다. 내 머리에 준비한 만큼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부하지 않고 무슨 우등상을 받겠습니까? 공부하지 않고 어찌 서울대 갑니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버드에 들어간답니까? 씨를 뿌리는 수고 없이

도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는 오늘도 나오기 전에 깊이 기도하며 저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가르치라’(마25:1~13)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매사 철저히 준비하여 요셉 같이 꿈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날 해외 졸업자와 통신 졸업자를 포함하여 총 2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

2015. 3. 10(화) ~ 20(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삿11:1~6)



꿈과 믿음이 있는 자, 지칠 줄 모른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창29:20).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1~2).
위 말씀의 주인공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 모두 꿈을 가진 자였고, 그들은 그 꿈을 향하여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으며, 믿음의 전당에 오른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성정이 달라서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은 꿈이 있었고, 오로지 그 꿈을 향해 질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꿈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까? 혹 지금 당신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꿈이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헬렌 켈러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eyesight)은 있으나 비전(vision)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성경에도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29:18)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꿈을 꿈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꿈을 버린 까닭입니다. 사

분수라는 잣대로 꿈을 재지 말라

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꿈을 상실하고, 꿈을 포기하고, 꿈을 버린 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제 파악한 겁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등등 운명 탓, 환경 탓, 시대 탓을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다 변명으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를 볼까요? 그는 기생의 소생입니다. 출신도 서러운데 그의 이복형제들이 가문의 수치라며 쫓아내어 잡배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꿈이 잉태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배를 훈련하여 마침내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운명론적 사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에게 네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친구가 중풍병에서 낫는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예수님의 근처는 고사하고 뿔 수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이 있었기에 남의 집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았고, 결국 그들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환경 탓은 곧 변명이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며 무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일부러 개 취급한 것이지만, 당시는 이방인을 업신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라며 포기하지 않더니 결국 그 꿈을 이뤄냅니다. 시대 탓도 핑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분수라는 잣대로 꿈을 재기 때문입니다. 꿈은 분수라는 잣대를 가져다 대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분수껏 살라고 합니다. 네 주제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꿈이 뭐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꿈이 아닙니까? 분수에 맞는 꿈이 어디 꿈입니까? 그러니 분수라는 잣대를 버리고, 인간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와 원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도 하나님의 환경 안에서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곧 하나님

의 환경으로 들어온 것임을 입증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환경 안에서는 믿음이 됩니다. 자주 말하지만 미물만도 못한 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뒷간에서 살 수도 있고, 곳간에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빌4:13). 왜냐하면 전지전능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모세도 환경을 바라보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일을 불가능해보였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안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니 가나안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0의 나이에 장정 숫자만 200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못한다, 안 된다’ 하는 어린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환경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큰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키워 가야 합니다. 씨를 심으면 바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꿈도 일련의 과정을 지나야 거둘 수 있습니다. 즉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소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꿈이 자

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꿈을 접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요셉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와 그의 형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형들의 곡식 단이 다 일어나더니 자기 단을 둘러싸고는 넙죽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별이 짝 둘러서더니만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꿈
먹구름을 보지 말고 먹구름 넘어 태양을 보라
이었습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비전(vision)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쉽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아니,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 다. 그는 구덩이에서 죽을 뻔 했고,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으며, 각고의 노력으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 올랐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 다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떡관장과 술관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나 저제나 옥에서 건져내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고도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난 후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겁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곡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니 13년 전에 꾸던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하라 사막을 건넌 사람은 장사꾼과 군인들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복자와 거부의 꿈이 있었기에 죽음의 모래바람 속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과 믿음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 꿈과 믿음이 당신을 지치지 않게 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당신이 행복할 것이며, 이것이 결국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힘써 하나님을 알자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
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
6:3).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간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패턴을 보면 그가 하나님
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곧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자기 의지
대로 살아간다. 그들에게 삶이란 이생뿐이
며, 죽음은 곧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
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
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분량
만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족이나 이웃에게 엄
청난 고통을 가하는 무리들이 있다. 오늘
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에 대
한 오해가 부른 참극이 난무하고 있지 않
은가?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테러사건들은 아주 극명한 예라 할
것이다. 9.11 테러를 자행한 테러리스트
들은 항공기를 뉴욕 쌍둥이 빌딩에 충돌시
키며 “알라를 위하여”라고 외쳤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 믿었던 셈이다.

중세 십자군 전쟁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외친 교황 우르바누스 2세
의 선포로 인해 엄청난 살상이 자행된 비
극적 사건이었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

해에서 비롯된 역사다.

역사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
스도의 말씀을 이용하곤 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은 철저
히 권력자들의 노리개로 이용되곤 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이 아
닌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럴 때 일
어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가톨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나의 영생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구
원의 길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
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
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우리가 행한 대
로 갚아주신다는 보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
하면, 천국에서 약속된 상급을 받을 수 없
다. 구원 받은 강도처럼, 벌거벗은 구원에
만족해야 한다.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
나님을 알고, 구원의 복음을 넘어 상급의
비밀까지 알게 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
재인지 정말 소름끼치도록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
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
라”(호6:6).

Henry
henry8829@naver.com

모든 농부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시골
에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는 늘 날씨 때
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호두 농사가 잘 될 텐데 잘 될만하면 바
람이 세게 불어 호두가 다 떨어지니 속
이 상했습니다. 농부는 생각하다 신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신이시여,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저
에게 1년만 날씨를 맡겨 주십시오. 딱 1
년 동안만 제 뜻대로 날씨를 바꿀 수 있
도록 해 주십시오.”

농부가 하도 애절하게 부탁하니 신이 그
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신이 났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대로 날
씨가 조정되었습니다. 해가 내리쬘길 원
하면 해가 나타났고, 비가 오길 원하면
비가 왔습니다. 그는 농사에 방해가 된
다고 생각한 바람과 천둥은 아예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농부는 날씨가 좋은
것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나무에 호두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농부의 생각대로
대풍년이었습니다. 농사에 관한 한 신
보다 자기가 한 수 위라고 생각했습니
다. 농부는 기쁨에 들떠 호두를 하나 깨
트렸습니다. 당연히 호두 속도 꼭 차 있
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
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빈껍데기뿐
이었습니다.

농부는 황당해서 빈껍데기 호두를 가지
고 신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과 바람 같은 고통이 있
어야 속이 여무는 거란다.”

그제야 농부는 날씨 전권을 신에게 반납
하고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
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

예수중심편집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세 나무 이야기

어느 산마루 위에 아기나무 세 그루가 살
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올리브나무가 하
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 될 거야!”
그러자 떡갈나무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배가 되고 멋진 왕을 태울 거
야.” 아기 소나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마루를 떠나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 서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
으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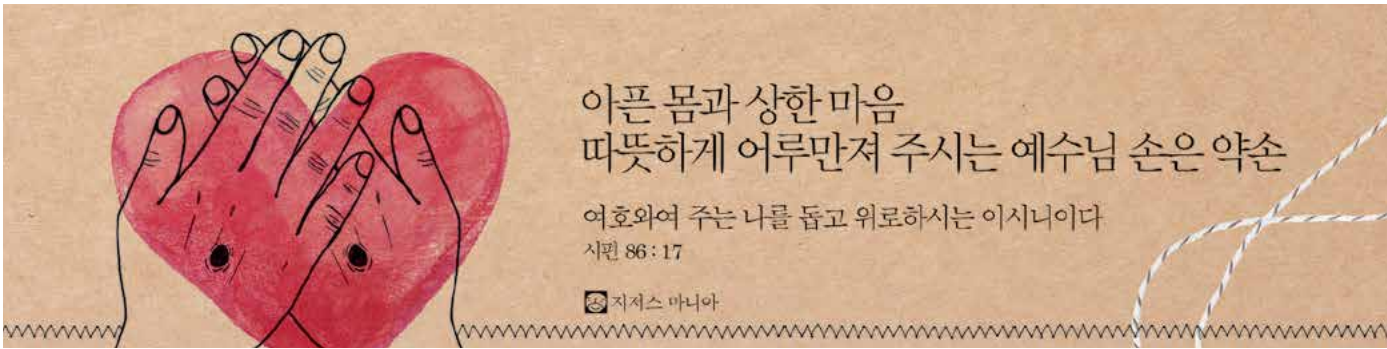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 세 그루의 아기 나무도 커다
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무꾼 세 사람이 산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이 세 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지고
내려갔습니다. 결국 올리브나무는 보석함
이 되지 못하고 가축들의 여물을 담은 구
유가 되었고, 떡갈나무 역시 큰 범선이 아

니라 조그만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소나무
는 길고 두툼하게 잘린 채로 어느 뒤뜰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 나무들은 어릴
적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올리브나무로
만든 구유는 마구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젊은 부부가 와서 그 구유
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날 밖에는 별빛
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올리브
나무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을 담고 있구나.’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고깃배는 세월이 이
미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
렵, 피곤에 지친 한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가
자 그 남자는 곧 잠이 들어버렸는데 갑자
기 큰 폭풍이 쳐서 파선될 지경이었습니

다. 그때 자고 있던 남자가 소리쳤습니
다. “잠잠하라!” 그러자 폭풍은 이내 잠잠해졌
습니다. 떡갈나무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가 하늘과 땅의 왕을 모시고 있구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나무는 몇 년을
목재소 뒤뜰에 방치되다 그날 아침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한 남자의
어깨에 걸쳐진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
니다. 병사들이 와서 그 남자의 손발을 묶
고 소나무의 몸עד 못을 박았고, 한 남자
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해 뜰 무렵, 세상은 온통 새롭게 변해 있
었습니다. 소나무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
의 사랑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꿈을 잃은 당신에게 드리는 엘레나 파스켈
리의 ‘세 나무 이야기’입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며칠 전 신문에서 “SNS의 사용이 늘면서 무심코
올린 글이 큰 화로 돌아오는 이른바 ‘디지털 필화
(筆禍)’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
다. 일례로 서울의 한 기업에 다니던 직원이 자신
의 개인 SNS에 “경영진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
지 않는다.”고 썼다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
았고, 그에 불응하자 책상도 자리도 없는 한직으로
좌천된 뒤, 급기야 6개월 뒤엔 징계 해고를 당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엔 한 유명 가수가 실수로 영화 한 편을 불
법 다운로드 받은 것을 자신의 SNS에 별 생각 없
이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지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한 온라인 미디어 회사의 흥
보담당 이사로 있던 한 여성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으로 가던 도중 영국의 한 국제공항에서 “아프리
카로 간다. 에이즈는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농담
이야, 난 백인이거든.”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남아공에 도착하자마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글은 SNS 상에서 11시간 만에 3,000
번이나 공유되어 인종차별논란이 일파만파로 커
진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펜을 잡거나 입을 벌리지 않아도 손쉽게
의사 표현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품위와 품격이라는 그
릇에 예절을 담아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으시겠습니까, 천 냥 빚을
지시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
한 사람이라”(약3:2).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고난 뒤에 축복이 따라온다



병색이 완연했던 시절의 모습



현재 단란한 가족 모습

저는 급성 맹장, 폐결핵, 뇌출혈, 뇌기형, 편마비 등 세 번의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총회장 목사님의 보살핌으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87년 제 아내가 옆집에 사는 그 당시 한국 예루살렘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인천 송의동에 있던 한국예루살렘교회 철야예배를 참석한 이후로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제가 불쌍해서 그 때부터 남편인 저의 구원을 놓고 급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덤프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공사를 못하게 돼야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신앙 생활은 아예 생각도 못했죠. 그러다가 87년 2월, 그해 설 연휴가 끝나고 일을 갖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대신 사장님께 전화로 보고하니 일단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를 본 사장님은 대뜸 “병원으로 갈래? 집으로 갈래?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기에 집으로 간다고 하니 집까지 차를 태워줍니다. 제 안색을 본 아내는 당신 믿음이 라면서 “병원에 갈래? 내일 철야예 목사님 기도를 받을래?” 했습니다. 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전 그때 믿음이 전혀 없던 때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급성맹장염 같다고 했습니다. 진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한 심정으로 내일 큰 병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혹시 많이 아프면 빨리 병원으로 오라며 늦으면 맹장이 터져 죽는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서울 구역식구들에게 부탁하기를 ‘감이 다 익어 떨어질 때가 됐다’며 성진 아빠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철야예배에 참석하였고, 총회장 목사님 안수를 받아 급성맹장염을 기적처럼 고침 받았습니

다. 를 구원하시려고 급성맹장염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일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고 기도하던 중 1톤 트럭을 사서 채소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해보는 장사였지만 믿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열심히 “배추요, 무요!”를 외치며 장사를 하고, 물건을 다 못 팔면 우리를 전도한 집사님(현 인천교회 권사)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어?” 하면서 남은 채소를 나눠 먹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문제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몸무게가 줄고, 식욕이 줄고, 급기야 목에서 각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결핵이라며 보건소로 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를 해보니 결핵 3기 후반, 4기 초반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격리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수건, 수저, 세면도구 등을 따로 쓰려고 준비했더니 아내가 보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구분해놓은 물건들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기도처를 처음 세울 때였는데 피를 토하면서 기도처 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죽은 처남하고 아버지가 나타나 처남은 괴롭히고 아버지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핵은 접촉하는 사람이 옮을 수 있는 전염병으로 처남이 결핵으로 죽었는데 밤마다 꿈에 나타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처남이 결핵으로 죽은 것을 잘 아는 큰 처형(현 서울 안내권사)은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라 ‘결핵을 병원 가서 약으로 고쳐야지 무슨 아순지 예수지가 고치느냐’며 욕을 하고 심하게 핍박을 했지만, 아내는 “언니 두고 봐.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담당 전도사이신 인천 이재순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나서 “이 집에 총각 귀신과 할아버지 귀신이 나갔다.”고 하시는데 요즘 말로 ‘펜봉!’이었습니다. 애기도 안했는데 족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겁니다.

보건소에는 관리대상자로 등록돼있어서 약을 정기적으로 타 먹곤 했는데, 약의 양이 워낙 많은지라 ‘약을 먹고 낳는 게 아니라 약에 취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약을 버려야 살겠구나’, 집에 와서 좀 지나면 ‘약을 먹어야 살겠구나’ 갈피를 못 잡고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께 기도 받고는 ‘약을 버려야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순간 폐결핵을 고침 받았습니

다. “전에 처남은 결핵으로 죽었는데 신 서방은 저렇게 멀쩡히 낳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하면서 전에 핍박하던 큰 처형, 작은 처형, 작은 처남, 장인, 처이모 등 온 일가친지가 구원을 받고, 현

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데, 날마다 불평을 일삼고 심일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등 나태한 생활을 하자 아내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 생각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그 당시 아내의 기도가 상달 되었나 봅니다. 급기야 99년 7월에 뇌출혈로 쓰러져 세 번째 하나님의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했더니 머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후에도 살 확률은 20% 정도로 작고, 산다고 해도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을 듣고 절망 가운데 한 가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뚜껑을 여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후 입원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반신이 마비되어 반쪽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제 생각에 죽는 것은 천국 가니 두렵지 않은데, 휠체어 생활을 할 경우 앞집에 살던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핍박했었는데, 그 사람이 비웃을 것을 생각하니 억울하던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 하나님 끌종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못 일어나면 하나님 망신 목사님 망신이니 걸어서 나가게 해 달라.”고 눈물콧물 범벅 되도록 아내와 병원 뒤 나무 밑에서 휠체어에 앉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원 집회를 마친 총회장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가셨는데, 옆에 병문안 왔던 누님이 “너 걱정 말아라. 너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들으니 금방 벌떡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머리 붕대를 살살 풀시고 환부에 입을 대고 쪽 빨아 빨으시는 것을 일곱 번 하시고는 “나 같게.” 하면서 가셨습니다.

의사는 수술해도 살 확률은 20%, 살아도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입원한지 한 달 만에 걸어서 퇴원하고 그 후로는 정상인들처럼 건강주시고 물질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트럭 몰던 신 기사를 신 장로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목사님 바라보며 엄지손가락 하는 큰일은 못하지만 새끼손가락 하는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고 고난 후에는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신영근 장로

따스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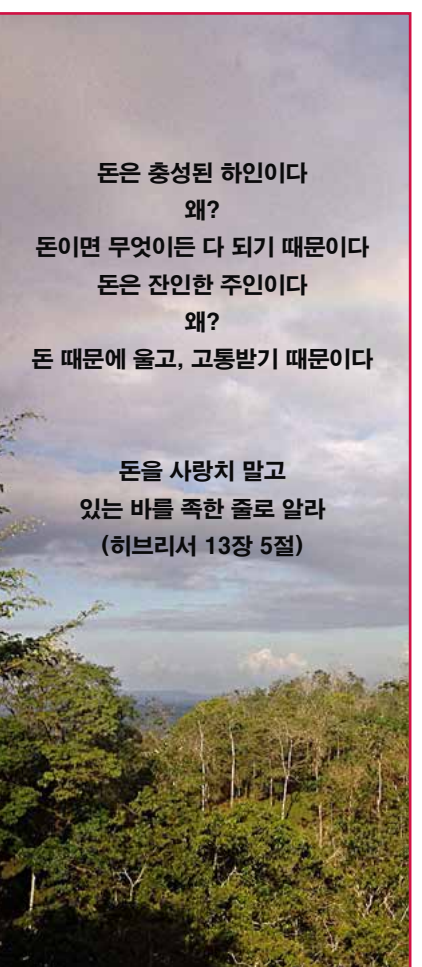
‘햇볕과 바람 이야기’, 다 아시죠?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닌 따스한 햇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이 높이 쌓아둔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은 큰소리와 고압적인 강한 자세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배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이 물이라고 할 때에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동안 꽁꽁 얼어버린 얼음덩어리도 따스한 봄이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녹아 버립니다. 따스함은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힘이 있거든요.

어느 해 2월에 길가에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날씨가 따스하니 봄이 온 줄로 알았나 봅니다. 며칠 후 때서운 꽃샘추위의 시샘으로 개나리꽃은 눈에 덮여 버리고 말았지만, 몇 날이 되지 않아 날씨가 따스해지자 다시 또 꽃망울을 터트렸습니다. 이처럼 따스함은 얼어있는 나무를 깨워 꽃망울을 맺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웃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추운 날 누군가를 안으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서로 누군가의 웃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고 새싹이 돋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봄의 따스함으로 서로에게 꽃망울을 터트려 주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2~3).



돈은 충성된 하인이다
왜?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되기 때문이다
돈은 잔인한 주인이다
왜?
돈 때문에 울고, 고통받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